

2018 충남사회적경제연구회

현장탐방 보고서(12.19)

■ 목적

- 연구회는 ①사회적경제 현장동향 파악 및 ②정책개발, ③사회혁신 및 사회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모델을 제안을 목적으로 함
- 이번 현장 탐방은 논산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, 농촌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이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함

■ 방문기관

- 발제 및 토론
 - 발표: 논산시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해서(류재호 논산시 주무관)
 - 토론: 사회적경제연구회 회원
- 현장답사
 - C메이커협동조합
 - 은진마을학교

구 분	시 각	시간(분)	진행순서
발표 토론	10:05~12:05	120'	- 논산시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해서 - 류재호 논산시 주무관
탐방1)	13:00~15:00	120'	- C메이커협동조합
탐방2)	15:00~17:00	120'	- 은진마을학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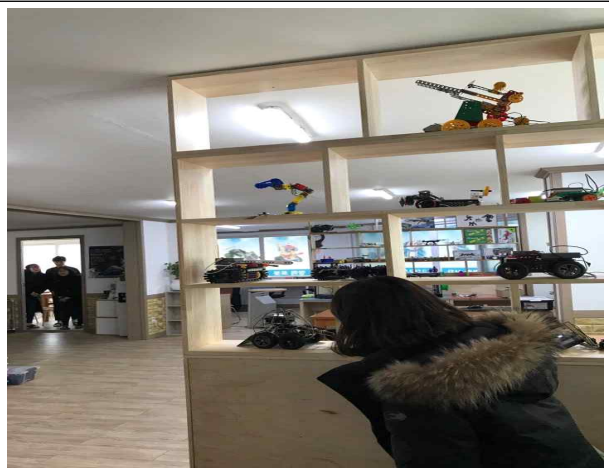
■ 시사점

- C메이커협동조합은 논산에서 SW코딩, 3D프린팅 교육을 실시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, 미취업 청년에게 미래가치 지향적 교육일자리를 제공
 - 협동조합은 논산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과정에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공교육의 혁신을 목적으로한 사회적경제조직
 - 지역청년일자리사업(행안부)을 통해 청년에게는 SW교육분야의 새로운 일자리경험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, 청년 사회적기업가로의 고민을

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음

- 은진마을학교는 조합활동을 통해 마을의 학생, 학부모, 교사, 주민이 교육·경제·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마을활동 및 교육서비스, 마을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임
- 은진면은 인구감소하고 있는 충남의 전형적인 농촌마을. 그러나 면소재지의 은진초등학교의 취학생 수는 도리어 증가추세(2010년 취학아동 22명→ 2017년 31명)
- 이는 은진마을학교의 역할이 컸음. 은진마을학교는 은진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및 자율활동(컴퓨터 등), 소통(놀이터)의 중심이며, 학부모가 자발적인 교사(돌보미)가 되어 추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
- 이를 통해 자녀를 둔 귀농·귀촌 희망 학부모에게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고 마을이 배움터가 되어 안심하고 귀농·귀촌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여 은진면에 귀농자가 늘어남. 나아가 귀농 학부모에게 일자리 제공

■ 사진자료(첨부)



은진마을학교 제공사진



은진마을학교 제공사진

2018 충남사회적경제연구회

현장탐방 보고서 (12.26)

■ 목적

- 연구회는 ①사회적경제 현장동향 파악 및 ②정책개발, ③사회혁신 및 사회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모델을 제안을 목적으로 함
- 이번 현장 탐방은 대전 원도심의 사회적경제 기업 운영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, 도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이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함

■ 방문기관

- 발제 및 토론
 -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대표: 사회적경제방식의 공정여행 이해
 - 대흥노마드 운영자: 사회적경제기반 청년의 연대협력의 커뮤니티
- 현장답사
 - 문화예술공간 투어: 이공갤러리 ▶ 대전갤러리 ▶공공예술프로젝트 ▶ 구)충남도청
 - 청년예술가 미은오리작업실 탐방

구 분	시 각	시간(분)	진행순서
발표 토론	10:05~12:05	120'	- 공감만세 대표 - 대흥노마드 운영자
탐방1)	13:00~15:00	120'	- 원도심 문화예술 투어
탐방2)	15:00~17:00	120'	- 미은오리작업실

■ 시사점

- 공감만세는 대표적인 공정여행 사회적경제 기업으로, 원도심의 다양한 자원을 상호연계하여 방문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
- 이는 방문객들에게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, 나아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
- 대전의 원도시사례는 충남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. 충남의 원도심에 청년 예술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조성하고,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

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

▣ 사진자료(첨부)

